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KYUNG HEE DENTAL SCHOOL NEWSLETTER

VOL. 8 (2014. 09 ~ 2015. 02)

# HELPERS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VISION
02 HELPERS 비전과 목표
03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SPECIAL REPORT
04 치과대학 학제의 새로운 시작

NEWS
06 학교 소식
08 교실 소식
13 동아리 소식

FOCUS
16 해외 탐방

INTERVIEW
19 박준봉 전임학장님 인터뷰

FOCUS
22 교실 탐방
24 문화 탐방

PEOPLE
26 발전기금과 동문 소식

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T. 02-961-0341~2 E. khsc0800@khu.ac.kr

http://dental.ac.kr

## HELPERS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하는 글로벌 치과의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등의 7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HELPERS vol.8
발행인 박영국 | 발행처 치의학전문대학원 | 발행일 2015년 2월 28일 | 편집장 박기호 | 편집위원 노대현 장석우 강윤구 김덕수 이정우 안효원 조영아 백장현 김동찬 조인숙
이 잡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허락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상 교육 뿐 아니라 인문사회치의학에 대한 교육 강화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영국 원장

HELPERS 8호가 발간되어 우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 이념 하에서 최적의 구강 보건을 통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에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 년 사이에 실력 있고 열정이 있는 교수들이 다수 충원되어 기초학문과 임상실습지도의 질이 높아졌으며 임상 교육 뿐 아니라 인문사회치의학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졸업 후 사회의 리더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타(MRC)와 덴탈케어를 비롯한 수십억원 이상의 국가 연구과제를 다수 수주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는 꾸준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세계 대학 평가에서 200위권으로 매년 위상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도 이에 발맞추어 여러 외국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인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동안의 결과에 자족하지 않고 더욱 세계화에 정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대학은 6년제 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13년 만에 치의예과 신입생의 모집을 시행하였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도 2년간 신입생을 더 모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변화들이 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여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은 우리 치과대학의 개교 50주년입니다.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치과계의 성장을 주도한 역사를 돌아보며 이를 기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50주년과 기념행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목표의식과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하는 교내 구성원과 동문,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2월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영국

# 치과대학 학제의 새로운 시작

본교는 2015학년도 치과대학 치의예과 신입생을 새롭게 맞이하였다. 2005학년도에 시작했던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제가 10년 만에 다시 치과대학 학제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학제 전환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입시 제도의 안정적인 유지 전환을 위해서 2016학년도까지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지속하며 그에 따라 치의예과는 올해부터 2018학년도까지 정원 80명 중 56명을 선발하고 24명은 이들이 치의학과를 시작하는 시기인 2017학년도부터 4년간 편입학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 입시에 있어서의 치과대학으로의 완전 전환은 2020년에 시작된다.

지난 호에서 다루었듯이 올해 치의예과 입시는 수시 52%(29명), 정시 48%(27명)으로 모집하였다. 수시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11명(학생부종합전형 70%, 면접 30% 성적반영)과 논술우수자전형으로 18명(국어A, 수학B, 영어, 과탐 2과목 응시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4이내 대상자, 논술고사 70%, 학생생활기록부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영역 성적 30%)을 선발하였다. 정시는 수능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였다. 오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와 정시 비율 및 전형별 평가 방식이 조정될 계획에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치과대학 학제에서는 의료계 교육의 새로운 추세인 성과기반 교육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졸업 시 학생들이 무엇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지에 기반하여 시기, 과정 및 과목별로 명확한 세부 성과들을 도출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치의예과 학생들이 치의학과로 진급과 치과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요건들도 강화하였다. 치의예과 과정에서 이전의 학문 분과 중심의 교양과는 달리 통섭과 소통을 강조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35학점 이상의 교양 과정 이수와 함께 학생 스스로 1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이수와 일정수준의 공인영어 성적 취득을 해야만 한다. 치의학과 과정에서는 1~2학년 동안 교수의 연구 및 실험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교과목(3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전까지 3학년 2학기에 시작했던 임상실습을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임상실습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본심폐소생술 자격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치과병원의 종합진료실 공간 확대와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유치, 연구 및 실험 공간의 효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3학년도부터 4학년과 3학년에 연차적으로 도입했던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객관구조화진료시험)를 실제 현장 교육 현장에서의 평가에서도 접목시켜서 이전까지 임상전단계 실습과 임상실습, 학생 종합진료실 진료 수행에 대한 양적 중심 평가에서 질적 평가 체제로 개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국시 필기시험에서의 CBT (Computer Based Test, 컴퓨터 기반 시험) 방식 도입 예정에 따라 기존의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의 필기시험 및 실습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이제 컴퓨터 기반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치과대학으로의 학제 전환을 기점으로 학교는 치과대학으로서의 국내외 위상 재고를 위해 다각도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올해 새롭게 입학한 치의예과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미국치의학교육인증 (CoDA :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글** 치의학교육학교실 방재범 **편집** 치과교정학교실 안효원

## 2014학년도 2학기 외래교원 위촉

우리학교는 2014학년도 2학기 외래교수를 위촉했다. 위촉된 외래교수는 신규 15명, 재위촉 112명을 포함한 총 127명이다. 원내생에 대한 강의와 임상 실습지도 및 본원의 대외 위상 재고를 위한 외래교원으로, 위촉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이다.

## 2014학년도 2학기 교원 인사

**해 외 장 기 연 수** : 치과보존학교실 김선영 부교수
**해외장기연수 복귀** : 치과보철학교실 배아란 부교수
치주과학교실 강경리 조교수

### 승 진

**치의학전문대학원 최용석 부교수** ⇒ 교수(2014. 09. 01일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선영 조교수(A)** ⇒ 부교수(2014. 09. 01일부)

### 퇴 직

최영철(소아치과학교실) 2015. 01. 12일부

## 전체교수 · 보직교수 워크샵

### 2014학년도 하반기 전체교수 워크샵 개최

- 일 시 : 2014년 10월 11일(토) 12:00~17:00
- 장 소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주 제 : 의학미디어의 과제와 의료커뮤니케이션/김영(고려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제2주기 인증평가 기준 및 준비과제/전양현(구강내과학교실)
  성과기반교육의 이해와 적용/방재범(치의학교육학교실)

### 2014학년도 보직교수 워크샵

- 일 시 : 2015년 01월 17일(토)~18일(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자 :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직교수
- 주 제 : 2016학년도 한국치의학교육 인증평가 대비 및 인증평가 전력수립을 위한 워크샵 개최

## 2015학년도 치과의사 국가고시

치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국가고시 대비를 위한 만찬을 2014년 11월 4일 치의학전문대학원 2층 로비에서 개최하였으며, 2015년 01월 16일(금)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71명이 응시하여 100%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 2015학년도 신입생 예비모임 및 대면식(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 2015학년도 입학예정자를 위해 캠퍼스투어, 학생회 안내 및 조별모임을 가졌습니다.

- 일 시 : 2015. 02. 04.(수) 09:00~20:00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강당

## 2015학년도 신입생 노력봉사 활동 실시(치의학전문대학원)

2015. 02. 09.(월)~02. 11(수)까지 아래 일정별로 4회에 걸쳐 교수4명, 학생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입생 노력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양재종합사회복지관 : 2015. 02. 09.(월) 09:00~15:00
- 금천노인종합복지관 : 2015. 02. 10.(화) 09:00~15:00
-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 2015. 02. 10.(화) 09:00~15:00
- 성동노인종합복지관 : 2015. 02. 11.(수) 09:30~15:00

## 2014학년도 학위수여식(치의학전문대학원)

2014학년도 전기 71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각종 수상자는 교내 · 교외 포함하여 총 23명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5년 02월 12일(목)
- 장 소 : 치과병원 지하1층 강당
- 졸업자 : 강선구 포함 총 71명
- 수상자 : 총장상 이근하(성적순위 1등) 포함 총 23명

## 후쿠오카 자매교 방문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국제화 사업 및 교육 특성화를 위하여 자매대학인 일본 후쿠오카 치과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제 및 교육과정에 대한 특강 실시, 국제교류를 통한 재학생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 일 시 : 2015. 02. 08.(일)~02. 13(금) 5박 6일
- 참석자 : 인솔교수 권일근, 본교 재학생 6명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치과대학)

치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2015년 2월 24일(화) 치과병원 지하1층 강당에서 실시하였으며, 입학식은 2월 27일 평화의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치의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을 2015년 2월 13일 10:00에 치과병원 지하1층 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2월 13일(금)~14일(토) 1박 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 구강해부조직학교실

■ 교실동정

– Takano Yoshiro (동경의과치과대학) 외래교수 강의 (2014년 10월 10일)

– 구강해부조직학교실 45주년 및 신제원 주임교수 회갑 기념식 (2014년 10월 18일, The K- Hotel)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SCI 학술지 3편 게재, 국내 학술지 1편 게재

■ 학회발표

– 일본기초치의학회 (9월 25일~27일, 후쿠오카, 포스터 발표, 신제원/주성숙 교수)

– 기초치의학 학술대회 (11월 28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포스터 발표, 신제원/주성숙 교수)

## 구강생화학 · 분자생물학교실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김정희 교수 : Oral immunization of hemaggulutinin H5 expressed in plant endoplasmic reticulum with adjuvant saponin protects mice against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 virus infection. Plant Biotechnology Journal 등 SCI급 4편게재

– 김정목 교수 : Screening methods for AMP-activated protein kinase modulators. Expert Opin. Ther. Pat. 게재

■ 학회발표

– 김정희 교수 : Brain Korea 21 plus Sypmposiun 참석

## 구강생리학교실

■ 논문발표 및 연구활동

– 이수정 교수, "Generation of resonance-dependent oscillation by mGluR-I activation switches single spiking to bursting in mesencephalic trigeminal sensory neurons." (European Journal of Neuroscience, Feb 25 pp. 1 – 15, 2015) 논문 발표

– 노대현 교수, "σ1 receptors activate astrocytes via p38 MAPK phosphorylation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mechanical allodynia in a mouse model of neuropathic pain." (Br J Pharmacol. 2014 Dec;171(24):5881-97) 논문 발표

■ 학회발표

– 노대현 교수, 제66회 대한생리학회 학술대회 (경상대, 2014. 10. 22-24) 및 Brain Conference 2014 학술대회 (서울대, 2014. 11. 6- 8)에서 포스터 발표 (3건). 제13회 대한기초치의학 학술대회 (서울대, 2014. 11. 28-29)에 참석 및 구연발표 심사위원으로 활동

##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 대외활동

– 김은철 교수 – "Novel molecular target for Periodontal Tissue Engineering"를 주제로 TERMIS-AP 2014 초청강연 (2014. 09. 26)

– 조영아 교수 "Epidemiology and classification of salivary gland malignancy"를 주제로 구강암 연수회 초청강연 (2014. 09. 20), "Neural differentiation of dental pulp stem cells"를 주제로 대한기초치의학회 연제발표 (2014. 11. 28)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김은철 교수 보건복지부 "치수와 치조골 재생을 위한 Protein phosphatase 1의 역할 규명 및 조절 기반 기술 개발" 연구비 수주 (8000만원/연, 3년)

– 김은철 교수 J Pineal Res (IF: 7.812) 등 SCI 논문 15편 게재

– 김은철 교수 "아연–생활성 유리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치수조직 재생용 인산칼슘 시멘트 조성물 및 이의 제조를 위한 키트" 특허 출원 (2015. 01. 15)

■ 학회발표

–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steoporosis and Bone Research 포스터 발표 1건 (2014. 10. 16-19)

– 제 22차 한국생체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4건 (2014. 11. 6)

– 제 13회 대한기초치의학회 포스터 발표 14건 (2014. 11. 28-29)

– 33th KADR 포스터 발표 12건 (2014. 11. 29)

## 악안면생체공학교실

■ 교실동정

– 치전원 후쿠오카치과대학 학생교류 인솔 (권일근교수)

– 최영숙 (지도교수 : 이진용) 교수임용 (신성대학교 치위생과)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

– Fabrication of Biomimetic PCL scaffold using rapid prototyping for bonetissue engineering, Subgingival microbiome in smokers and non-smokers in Korean chronic periodontitis patients (Mol. Oral Microbiol.) 및 pH-Controlled Gas-Generating Mineralized Nanoparticles: A Theranostic Agent for Ultrasound Imaging and Therapy of Cancers (ACS Nano, IF = 12.033) 등 SCI 논문 20편 게재

■ 학회발표

– UKC(US-Korea Conference) 2014, San Francisco, USA, 2014. 08

– European Materials Research Society, Warsaw, Poland, 2014. 09

– Pacific Meeting (TERMIS-AP) 2014, Daegu, Korea, 2014.09

– Biomedical Engineering Society (BMES) 2014, Texas, USA, 2014.10

–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11. invited talk : 이재형)

## 예방/사회치과학교실

■ 교실동정

– Marquis Who's Who 등재(2012, 2015 박용덕교수)

■ 논문/특허발표 및 연구활동(예방/사회치과학교실)

– Analysis of parabens in dentifrices and the oral cavity 등 SCI 5편을 발표하였다.

– Safety and Efficacy of Fittydent Mega Denture Clean Agents: in Vitro 등 국내 1급 학진 등재지에 4편을 발표하였다.

– 2014년 12년 06월 난치성 턱뼈 질환 센터 연수강좌에서 '법률에서 요구되는 협진의 의무 –BRONJ 등'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학회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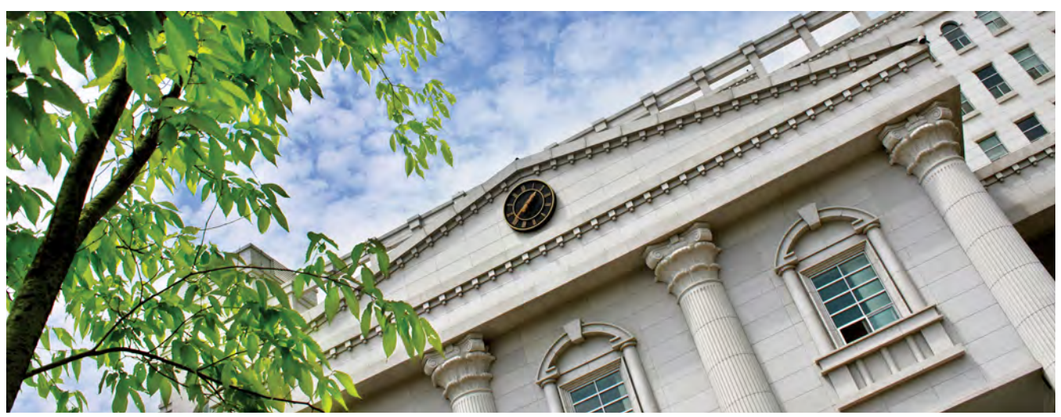
–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17th-19th, September, 2014, Beijing, China. poster 7건)

–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Korea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and Oral Health (October,31,2014. Poster 6건)

– 2014 Korean Academy Of The Preventive Academy (November,23,2014. poster 5건)

##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교실

• 2014년 10월 18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오송희 선생이 구연발표를 하였다.



- 2014년 10월 30일–11월 2일 최용석 교수는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린 제19회 일본 치과방사선학회 임상화상대회에서 초청강연을 하였다.
- 2014년 11월 20–22일 황의환 교수, 김규태 교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 2015년 1월 24일 영상치의학과 동문회 주최로 '2015년 신년회 및 학위패수여식' 을 하였다.

## 치과교정학교실

- 2014년 10월 3일–7일, 김수정 교수가 미국 Anaheim에서 개최된 WIOC(World Implant Orthodontic Conference) 78th Annual Session에 참석하였다.
- 2014년 10월 17일 박영국 교수가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9th APOC(Asian Pacific Orthodontic Congress)에서 "3D Photo-Imaging in Orthodontics Incognito-Individually tailored lingual orthodontic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4년 10월 20-22일 박기호 교수가 Chiba에서 개최된 일본교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4년 10월 31일 안효원 교수가 대학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에서 "Temporomandibular joint as a crucial guide to the orthodontic treatment"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4년 11월 1일 김수정 교수가 서울 COEX에서 개최된 2014 대한치과교정학회 제52차 정기총회 및 제47회 학술대회 심포지움에서 "Orthodontic approaches for the treatment of OSA adult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4년 11월 6일 강윤구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에서 'Class II Twin Block functional therapy' 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4년 11월 21일 박영국 교수가 TIOF(Taiwan International Orthodontic Forum)에서 "Non-invasive accelerating tooth movement"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4년 12월 1일부로 안효원 교수가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 편집기획이사로 선임되었다.
- 2014년 12월 7일 김수정 교수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개최된 카톨릭대 치과학교실 주최 제12회 학술대회에서 "Healing orthodontics: Orthodontic intervention into alveolar defects"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4년 12월 13일 박기호 교수가 대한디지털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교정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5년 1월 7일–8일 박영국 교수가 상해에서 "Incognito Certification Course"에 대해 강의하였다.
- 2015년 2월 1일부로 강윤구 교수는 강동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국제 부장을 겸임하였다.

## 소아치과학교실

- 2014년 10월 24–25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개최된 2014년 대한소아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4년 11월 22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2014년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추계학술집담회에 참석하였다.
- 2014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 열린 소아치과 집담회에 참석하였다.
- 2015년 1월 12일 최영철 교수가 퇴임하였다.
- 2015년 1월 17일~18일 부산 해운대 팔레드시즈에서 경희대학교 소아치과 교실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 2015년 2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된 스마일 재단 창립 12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이은영 교수가 장애인 소외계층 진료 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2014년 10월 2일 이덕원 교수가 '안면기형 환자의 특성 분류와 이해' 라는 논문으로 제30회 경희의학상 동상을 수상하였다.
- 2014년 11월 1일 지유진 교수가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차 대한 구강 악안면 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Surgical treatment of maxillary and zygomatic fracture'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 2014년 11월 14, 15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이백수, 오주영 교수, 홍성옥, 이현우 선생의 참가 하에 열린 Bone management course for dental implant에 말레이시아 치과의사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 2014년 11월 29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개최된 턱관절학회에 최병준 교수가 참가하였다.
- 2014년 12월 6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제2회 난치성 턱뼈질환 연구회에 권용대 교수가 강의하였다.
-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공의들이 서울대 치과병원과 카톨릭 의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악성카데바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 치주과학교실

- 2014년 9월 17일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에서 대한치주과학회 2014년도 제3차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2014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EAO(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 학회에 허익 교수가 참석하였다.
- 2014년 10월 24일 A. Moshaverinia 교수가 "Periodontal tissue regeneration using mesenchymal stem cell"을 주제로 해외연자 특강을 하였다.
- 2014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4회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4년 11월 8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열린 2014년 대한노년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전 의국원이 참가했다.
- 2014년 12월 12일 청담동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치주과학교실 및 치주과 OB회(K-perio) 송년회에 전 의국원이 참가했다.

## 치과보철학교실

- 2014년 9월 1일 배아란 교수가 보스턴 Tufts 대학에서 복귀하였다.
- 2014년 9월 10일 권긍록 교수가 'KBS라디오 라디오주치의 이충헌입니다' 에서 '노년기 치아건강' 을 주제로 출연하였다.
- 2014년 9월 25–2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EAO(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 annual scientific meeting 심포지움에서 이성복 교수가 'Smart Implant placement & Computer guided dentistry'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4년 10월 2–4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장애인치과학회에서 이성복 교수가 '고령–장애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철학으로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4년 10월 25–27일 대만 카오슝에서 개최된 아시아치열재생재건학회에서 이성복 교수가 '임플란트 가철성 보철'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4년 11월 21–22일 권긍록 교수가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보철학회에 참석하였으며 R2. 김주형, 박민서 포스터 발

표하였다.

- 2014년 11월 29–30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2014년 12월 5일 권긍록 교수가 'KBS라디오 라디오주치의 이충헌입니다' 에서 '음주가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출연하였다.
- 2014년 12월 7일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에서 백장현 교수가 '임플란트 보철 시작을 위한 인상법'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4년 12월 15일 권긍록 교수가 필리핀 CEU(Centro Escolar University) 치과대학 방문단 투어에 교류홍보부장으로 위촉되었다.
- 2014년 12월 20일 백장현 교수가 부산에서 열린 대한디지털치의학회 부울경지부 학술대회에서 '3D implant planning systems and surgical guides의 비교 분석'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치과보존학교실

- 2014년 9월 1일 김선영 교수가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 2014년 9월 1일부터 1년간 김선영 교수가 UC버클리 대학교 방문 교수로 출국하였다.
- 2014년 9월 10–13일 박상혁 교수가 크로아티아 DUBROVNIK에서 열린 IAD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에 참석하였다.
- 2014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접착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경규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4년 10월 박상혁 교수가 "동종이식 가능한 치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와 융합형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치수재생 및 치아기능회복"으로 보건복지부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Dental care) 연구과제에 선정되었다.
- 2014년 10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근관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경규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4년 11월 박상혁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 연구교류지원사업 과제에 "Pulp regeneration by pulp-derived stem cell and tissue engineering"을 주제로 선정되었다.
- 2014년 11월 9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심미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덕수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4년 11월 22–23일 대한치과보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박상혁 교수, 김덕수 교수가 강연하였다.
- 2015년 1월 31일–2월 1일 최경규 교수, 김덕수 교수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IAD(International Congress on Adhesive dentistry)에 참석하였다.

## 안면통증 · 구강내과학교실

- 2014년 9월 5일, 전양현 교수가 'CBS 라디오 웰빙 다이어리' 에 '[추석특집 – '부모님, 오래 사세요!' ] 부모님께 '씹는 즐거움' 효도선물… 틀니 · 임플란트 · 브릿지 중 무엇을?' 코너에 출연하였다.
- 2014년 9월 24일, 어규식 교수가 서울시 치과의사회 주최 '턱관절연수회' 에서 '턱관절장애의 치료' 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 2014년 10월 2일, 경희의료원 43주년 개원기념식에서 구강내과 과장 전양현 교수가 미원 임상의학상 금상을 수상하고, 구강내과가 우수부서로 수상하였다.
- 2014년 10월 10일, 어규식 교수가 'KBS라디오 라디오주치의 이충헌입니다' 에서 '구내염' 으로 출연하였다.
- 2014년 10월 18일, 연세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면통증 · 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양현 교수가 Clinical issues in TMD 의 좌장을 맡았고, 어규식 교수가 '만성 구강안면통증의 감별진단' 을 강연하였다.
- 2014년 10월 29일, 어규식 교수가 '헬스경향' 에 '괴로운 잠버릇 '이갈이' ' 기사가 개제되었다.
-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제5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전양현 교수가 'Diagnosis and Reversible Treatment of Snoring and Obstructive Sleep Apnea'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 2014년 11월 26일, 어규식 교수가 '조선일보 헬스뉴스' 에 '원인모를 두통 · 소화불량 일으키는 턱관절 장애' 로 기사가 게재되었다.
- 2014년 12월 17일 홍정표 교수가 '조선일보 헬스뉴스' 에 '콧물, 위산도 입냄새 유발한다' 로 기사가 게재되었다.
- 2014년 12월 18일 홍정표 교수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 에 '악~ 소리나는 턱 질환!' 으로 출연하였다.
- 2015년 2월 17일 홍정표 교수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 '지친 몸의 경고, 입병' 으로 출연하였다.

### 농구부UNIT

농구부 UNIT은 지난 4월 25일에 정기 OB/YB전을 교내 네오르네상스관에서 가졌습니다. 선후배가 모여 박빙의 승부를 겨루면서 함께 땀흘리며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은회/신입생환영회/등원식 등의 상반기 농구부의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교에 계신 네 분의 교수님과 선생님들, 졸업하신 많은 OB선배님들까지 함께해 주셔서, 새로 들어온 1학년 신입생들의 입학 및 UNIT 가입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 축구부 FC CANINE

10월12일 일요일 OB/YB 시합을 가졌습니다. 많은 OB 선배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1학년 신입생들로 세대교체 및 전력보충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차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전치제 축구대회 준결승에 올랐던 만큼 5월 2–3일 전치제 예선에서 좋은 성적으로 본선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클래식기타동아리 덴탈 스트링스

저희 스트링스는 9월에 고황치전 축제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참여한 뜻 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인원수가 많아져서 동아리원들과 함께 친해져가고 추억을 쌓아가는 것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 미술동아리 흘

2014년 11월에 진행된 정기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치며, 새로운 2015년을 다짐하였습니다. 2015년 올해에도 미술부에 꼭 맞는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좋은 후배들이 16명이나 들어와서 올해의 활동과 전시회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림을 그리고, 방학 중에는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오케스트라 동아리 Dental Orchestra

지난 가을학기(9–12월)에는 다른 오케스트라들의 공연을 다니며 동아리 사람들 간의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11월 8일에는 43기 박용순 선배님이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11월 9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이뤄진 대학 오케스트라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12월 23일 지난 일 년을 마무리하며 종강파티를 가졌습니다. 2015년 1월 15일 4학년 선배님들(43기 : 고광옥, 노현하, 양선인, 조연주)의 국가고시 응원을 다녀왔고, 2월 5일 졸업생 환송회를 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OB 선배님인 12기 김재오 선배님의 치과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난 1–2월 신입생 OT 공연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모여 연습했고, 2월 12일에 있었던 본과 신입생 OT 공연, 2월 24일에 있었던 예과 신입생 OT 공연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기독교진료학술봉사동아리 CDSA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팔탄농협에서 겨울장기진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백수 교수님, 최용석 교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OB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알차고 배울 점이 많았던 시간이었으며, CDSA 회원들과의 정을 좀 더 돈독하게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2월 28일에는 최대균 교수님과 이만섭 교수님을 모시고 서울성남교회에서 일일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 통기타동아리 애야라시

2014년 가을은 공연이 참 많아서 행복했던 해였습니다. 9월 13일에는 졸업하는 43기의 기수공연이 있었습니다. 11월 8일에는 OB선배들의 공연이 있었고, 11월 22에는 가을 정기 공연이 있었습니다. Wind song의 잔잔한 기타곡을 시작으로 감미로운 노래부터 신나는 곡까

지 총 18곡을 공연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경기도 양평으로 2박 3일간 뮤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신나게 춤추고 놀기도 했고 저녁에는 OB선배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기타연주도 하였습니다.

### 기독교 동아리 모퉁이돌

모퉁이돌에서는 작년 10월 7일 학교 근처에 위치한 레지던스에서 함께 삶을 나누며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월 22일에는 종강예배 및 서남식 선배님(41기)의 아프리카(말라위) 선교를 위한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10일에는 졸업생 환송회가 민들레영토에서 있었습니다. 4명(서유경, 이선진, 이희현, 최우정)의 선배님들이 모퉁이돌을 떠나 세상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큰 주춧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 진료봉사동아리 의료연구회

저희 의연의 활동으로는 정기진료, 정기총회, 정기교육, 여름 캄보디아 해외진료봉사, 국내장기진료봉사, MT, 졸업생 환송회, 점심모임, 선배치과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OB/YB가 정을 나누고 선배님들께 좋은 말씀도 듣는 교육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진동아리 DAPO

10월중에는 재학생들끼리 다포 정기 세미나를 하고 뒤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11월말에는 종강총회 및 졸업생환송회를 진행하여 졸업을 앞두신 선배님들과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 진료학술봉사동아리 W.B.M.

W.B.M에서는 꾸준히 해오는 일일진료봉사를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큰 변화라고 하면 2015년 3월부터 기존의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군자역에 위치한 중곡종합사회복지관으로 봉사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행사에는 10월 8일에 가을정기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교수님과  OB선배님들께서 오셔서 의미있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 학술발표회를 진행하였는데 15기 김석훈 선배님께서 연자로 참여하셔서 “치과의사 되기 그리고 지속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이후 12월 9일에 졸업생 환송회를 통해 4학년선배님들의 졸업과 국시합격을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겨울방학기간 동안에는 1월 16일 W.B.M의 4학년 선배님들의 국시응원을 다녀왔고 2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영북농협으로 치과진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최경규 교수님 지도아래 많은 수련의 선생님들과 로컬에 계신 OB선배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성공적인 정기진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산악부(KHDAC)

산악부는 매달 서울 근교 산을 등산하고 있습니다. 첫 산행은 산악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시산제로서 지도 교수님, OB선배님들과 함께 소요산을 등반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좋은 풍경을 많이 보며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테니스동아리 Y.D.T.C.

2학기를 맞은 YDTC멤버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주 토요일 노천 코트에서 함께 땀 흘리며 정기훈련을 가졌습니다. 10월 12일에는 도곡동 숙명여고 테니스 코트에서 YD의 창립기념대회가 열려 OB선배들과 테니스 시합을 하며 정기훈련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쳤습니다. 새해가 되어 1월 중순 일주일간(1.14–19) 학교 노천 코트에서 겨울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OB선배님의 격려방문이 이어져 레슨도 받고 시합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월 17일부터 18일 겨울엠티는 남양주 테니스 펜션에서 진행하여 즐겁게 공치고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말(29–30일)에는 창원에 계신 OB선배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함께 YD회가도 부르며 YD의 전통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배구부 NET

저희 배구부는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전치제, OB/YB전, 타대학교류, 졸업생 환송회, 매달 정기훈련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아리들과 구분되는 점은 배구부 운동할 때 졸업생 선배님들이 자주 찾아서 재학생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 야구부 덴탈에이스

Dental Ace는 기본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주말에 모여서 훈련 또는 경기를 합니다. 경기가 없는 주는 주로 훈련을 진행하는데 전원이 모여 송구연습을 위한 캐치볼, 수비연습을 위한 펑고, 타격연습을 위한 토스배팅 등을 하면서 실력을 다집니다. 훈련 외에 1학기 고황컵, 2학기 고황체전 등 교내리그에 참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국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야구동아리가 참가하는 전치제도 참여합니다.

### 진료봉사동아리 KODA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코다는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매월 2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부천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편집부

저희 편집부는 각종 교내외 행사를 취재하고 학장님 인터뷰와 장애인 치과병원 특집으로 하반기 치우현우를 발행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치우현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 나의 해외 연수기

## Tufts University School of Dental Medicine, Boston

보철과 진료실 입구에서 Prof. Sén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에 있는 Tufts University School of Dental Medicine의 Department of Prosthodontic and Operative Dentistry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보스톤은 교육의 도시이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도시이고, 의료, 교육, 문화, 정치 등 모든 면에서 '최고', '제일'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는 아이 둘과 함께 아는 이 한 명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보스톤에서의 1년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도착하여 삼주일간은 은행계좌 개설하고, 자동차 구입하고, 보험가입하고, 아이들 학교 등록시키고,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하고, Tufts에서의 international faculty 위한 orientation meeting, 수십명의 보철과 faculty와의 만남 등 이러한 과정들은 나를 제대로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Harvard University에서 장기간 재직하시면서 임플란트학에 있어 저명하신 Prof. Hans-Peter Weber께서 나를 현재 Director로 계신 Tufts University의 Department of Prosthodontic and Operative Dentistry로 흔쾌히 초청해 주셨다. Prof. Weber는 경희대학교의 여러 교수님들뿐 아니라 국내 많은 보철의들과도 인연을 맺고 계셔서 내게 호의적이셨고, 그곳에서 나의 연수생활은 안정적이었다. 원내생 클리닉에서 teaching도 하고 CAD/CAM 실습과 고정성 보철학 실습도 임플란트학 디렉터인 Dr. Muftu와 들어가면서 학생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0개 이상 해야 하는 고정성 보철 케이스와 심지어 국소의치는 물론이고 총의치 케이스까지 4학년에 채우느라 벅차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비싼 학비에 대한 고민이며, 기공과정을 쉽게 통과시켜 주실 리 없는 꼼꼼하신 한국인 교수님 Prof. Park에 대한 불만까지, 학생들의 재잘거림에 나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았다. 원내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 젊은 사람들과 예상 밖의 교류를 쌓으면서 나의 학생 시절, 레지던트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기도 했다.

학생들의 실습수업과 임상수기시험, 학생들의 원내생 클리닉 운영, 교수들의 임상연구 등 한국에서는 어렵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시스템화되어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 부러웠다. 특히, 임상연구를 위한 별도의 회의실과 진료실은 물론이고 많은 서류작업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다. 임상연구를 위한 프로토콜이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까 생각하며 우리 보철과의 임상연구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고민도 해보게 되었다. 개개인만 봐서는 우리나라의 교수들이나 임상가들보다 월등하게 훌륭하다 할 수 없는데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었을 때 보여주는 시스템과 조직력이 미국 교육의 힘인 것 같았다.

Tufts의 레지던트교육은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교수들의 수련 교육에 대한 참여가 훨씬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교수들의 주입식 강의는 없지만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보는 동안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모습에서 내가 예전에 받았고 그동안 행해 왔던 수련 교육에 대하여 되돌아 볼 수 있었다. 보철과의 과장님이 일본인이고 부과장님이 한국분이셔서 동양적 사고방식과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 학부보다는 개인적으로 친근했다. 임상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학교인 만큼 대학원생들도 모두 실험을 위한 연구가 아닌 임상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보스톤 지하철인 T를 타고 오고 가는 출퇴근길 보이는 메사추세츠 의사당이 유서 깊다.

전세계에서 모여든 레지던트들의 열의는 꽉찬 야간 진료 스케줄과 주말에도 기공하고 세미나 준비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 해마다 가을에는 Northeast Postgraduate Implant Symposium이 동북부 지역의 치과대학들이 돌아가면서 주최하여 임플란트 관련 임상과에서 모든 레지던트들이 발표를 한다. Columbia, NYU, Boston University, Harvard, Rutgers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UCONN 등의 치과대학에서 몇 일에 걸쳐 각자의 케이스와 연구를 발표하면 이름만 대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웃으며 신랄하게 비판과 지적을 서슴치 않으시고 레지던트들은 또 웃으며 여유롭게 대답하며, 잘 몰라서일까, 농담으로 넘기기도 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각 학교의 특성이 돋보이는 개성 있는 레지던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며 우리나라 치과대학들에 대한 평가, 학회와 각 임상과목 교수협의회에서 지향하는 바에 따라 얻어진 우리나라 모든 치과대학들의 통일된 커리큘럼이 최선일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보스톤 사람들은 모두들 자신이 최고라 생각하는 것 아닐까? 아니면 전세계에서 모여들어 경쟁이 심한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그런 척 하는 걸까?

어찌되었든 약간 삭막하면서도 겉으로는 미국사람들 특유의 친절함으로 무장한 보스톤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질 때, 이스탄불 대학에서 온 방문교수인 Prof. Deniz Sén와 베프가 되었다. 10살 많은 Prof. Sén은 싱글이라 같은 방문교수이지만 보스톤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와 완전히 달라서 나는 그녀와의 대화가 더욱 흥미로웠다. 퇴근 후엔 타파스에서 와인 한 잔 즐길 줄 아는 그녀와의 점심시간은 가끔 고통(?)스럽기도 했다. 터키인들은 상당한 미식가에 대식가여서, 학교의 카페테리아나 Tufts앞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의 아시안 레스토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탈리안 음식과 그 외의 여러 맛집이 유명한 North End까지 가야 했으며 반드시 달콤한 디저트로 마무리해야만 한 끼 식사가 끝났다.

지르코니아에 대해 그 동안 해온 연구뿐 아니라 앞으로 관심 있는 연구분야도 공교롭게도 같아 보철과 교수로서의 고민, 공동연구에 대한 계획, 등 서로 짧은 영어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College of Prosthodontics에 반드시 참석한다 했으니 1년 동안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것이 기대된다. 자신의 저서를 선물로 주며 떠났는데, 나는 1년만에 다시 보는 그녀에게 무슨 선물을 할지 벌써 고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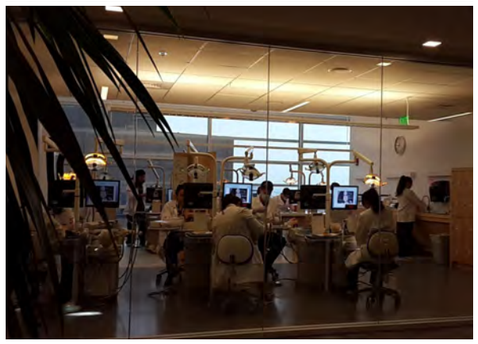
아이들과의 미국생활은 6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가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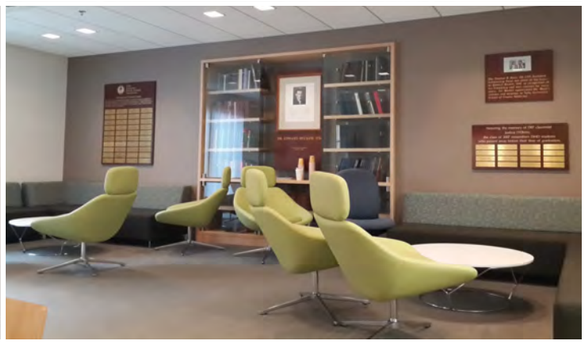
이 뭉클해진다. 다시는 미국에서 함께 했던 시간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직접 그렇게 많은 끼니를 해주지도 못할 것 같다. 아들에게는 든든한 친구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고 영어를 못하면서도 항상 즐거운 딸은 매일 나를 웃게 해주었다. 덕분에 금요일 저녁만 되면 주말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고, 연수기간의 반에 해당되는 11월부터 4월까지의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과제가 어깨를 무겁게 했다.

내가 어릴 적 미국생활하며 느꼈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은 보스톤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곳의 사람들 모두 치열하게 경쟁하며 동동거리며 사는 것은 한국과 비슷했다.

방문교수라는 나의 위치가 나를 자유롭고 여유롭게 해주었지만 오히려 나에겐 사치처럼 느껴지고 아주 가끔은 숨돌릴 틈 없는 서울생활이 많이 그리웠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여겼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낯선 도시에서, 언어 장벽보다도 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외로움 때문에 힘든 1년을 보낸 후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이 조금은 생긴 것 같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보스톤에서의 생활은 벌써 추억이 되어 버렸지만 감사함과 용기로 지냈던 그 곳에서의 마음가짐은 잊지 않고 싶다.

**글 · 사진** 치과보철학교실 배아란 **편집** 치과보존학교실 장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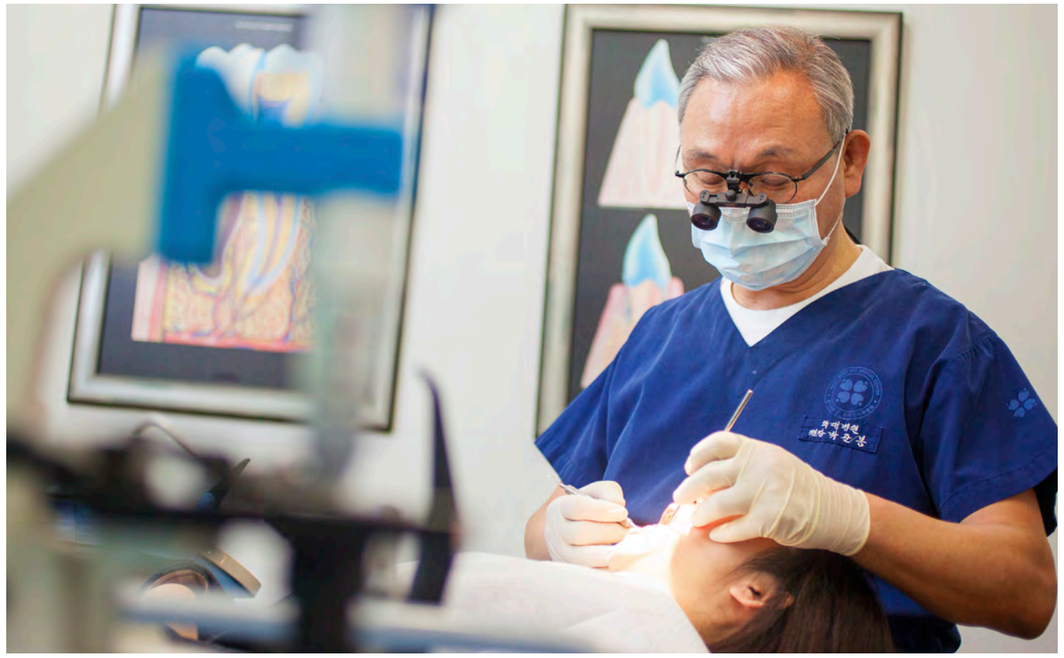


Fenway Park, 보스톤 Red Sox의 홈구장으로 메이저 리그에서 제일 오래되었다. / Tufts University Boston Campus 전경
Simulation Learning Center / Student Lounge





# 박준봉 전임학장님 인터뷰



**늘 바쁘신 것 같은데 학장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근황이 뭐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웃음). 치과대학 학교 행정을 마치고 그렇다고 일을 안하기에는 그렇고, 최근에 일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Medical Leaders Cooperation이라고 해서 MLC라는 것을 구성해서 4월 중에 법인화를 계획하고 있어요. 의과대학 정년퇴임에 가까운 교수님들 각 전문분야마다 모여서 구성된 모임입니다. 한국 의료계를 더 발전시키고 과거 외국 (미국이나 스웨덴 등) 의료계에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의료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편적으로 잠깐 갔다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여러 전문 분야에 걸쳐서 의료계를 망라할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저는 치과 분야를 담당하고요. 동남아 국가나 남미, 중국, CIS 국가들에 의료 교육을 주로 하고자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으로 이해하면 되요. 또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의료계가 무엇을 해야 하나도 목적중의 하나에요. 통일 준비하는 과정, 통일 과정 중, 통일 후 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인력들을 미리 교육하고 준비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지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학장님은 늘 건강하고 밝아 보이십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요?**

몇 년 전부터 자가운전을 멀리하고 주로 걸어 다닙니다. 전철로 주로 다니고, 원래 산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높고 험들고 멀리가야 하는 산이 아니고 쉽게 오를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산을 반복적으로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루에 3시간 정도면 산행할 수 있는 산을 가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발목에 모래 주머니도 차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5-10킬로 정도는 뛰는 것도 좋아합니다. 1주일에 2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단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후일에 건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 몸이 건강할 수 없으므로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웃음)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건강은 잘 모르는 거죠 (웃음)

**학장 재임 시절에 특별히 기억나시는 일, 힘드셨던 일이 있으신지요?**

크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육체제가 치전원 및 의전원에서 다시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위원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각 대학의 상황 및 성격에 맞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결정하는 과정의 많은 논의들을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교도 치전원에서 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았죠. 그 환경에 맞추어서 학교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때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교는 사학입니다. 교수님들이나 졸업생들이 임상적으로 매우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반면 연구분야는 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에서 학교를 평가할 때는 연구 역량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연구 역량을 높힐 수 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연구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적인 면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과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기다려서 연구 업적들이 나오고 하는데 제출한 논문이 검증후 채택되어 세계에서 인정받고 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이 무얼까 고민하다가 외부의 연구 분야에서 탑클라스인 분들을 영입해서 전체 교수님들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자라고 결론 맺었지요. 잘 아시는 대로 적절한 교수님을 모시고 왔지요. 그 교수님을 모시고 올 때 선임 교무처장님이 바뀔 때 였는데, 교체시기에 첫 집무일 아침에 그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나 뵙고 부탁하였지요. 교무처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2개월 만에 그 교수님을 모셔왔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통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분위기, 즉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인사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조치가 분위기와 기류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학교의 연구기조가 상당히 수준 높게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가시간이나 휴일은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여행은 자주 다녀 오시나요?**

많이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그렇게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아까 말했던 산행하는 정도인데,..

사실은 작년에 카톨릭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가 2011년 12월 21일에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바보들의 나눔”에 참여해서 MOU를 체결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양현 교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우리 학교는 기술과 지식만 가지고 의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많이 강화된 의사를 배출하자 했습니다. 신입생 들어오는 데로 봉사를 먼저 시작하고 3학년 때에도 구강검진과 교육등으로 봉사를 해서 국민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MOU 체결하던 날 많이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전양현 교수님, 방재범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과 여러 학생들과 행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작년에 세례도 받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 세례가 마음의 큰 변화였습니다. 로마를 가서 바티칸도 보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행은 가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UCLA alumni에서 아마 5월말에 라오스에 갈 것 같고, 의료친선협회에서 다녔던 미얀마에도 방문해야 하고, 9월에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과 MOU 협약하여 같이 co-work도 하고 그곳의 고려인들 진료도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여행을 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일과 관련된 여행을 하는 게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CODA 지도교수이신데 어떤 계기로 CODA를 맡게 되셨는지요?**

예전에 의과대학 예방의학의 박순영 교수님이 CODA 지도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2002년인가, 2003년에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면서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찾아다니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를 찾아오고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CODA라는 그룹이 만들어질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졌고 그 구성원들이 치과대학에서 나이가 많은 학생들로 구성되다 보니 그 당시에 어려운 분위기가 많았었다는 것 같아요. 힘들게 만들었던 동아리다 보니 잘 해 보자고 찾아 왔었고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장님께서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치과계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2030년에는 과잉공급이 된다고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죠. 매년 760명씩 치과의사는 배출되는데 우리가 활용하고 활동하는 분야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분야는 넓히지 못하면서 치과의사만 늘어나고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치과의사들 간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과대학 다닐 때와는 사회가 많이 달라서 예전에는 의료인과 국민, 즉 환자사이에 인술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었는데, 요즘에는 의료인과 국민 사이에는 냉철한 의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야도 저작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심미, 연하, 후각, 안면 표정, 통증, mucous membrane 등으로 확장하여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가 치과가 아니라 구강 의학이라고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전공할 수 있는 분야는 꼭 깊게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대학이 국립이던 사립이던 상황이 정원을 쉽게 줄이기는 어려워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통하게 전문적인 분야는 꼭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기술과 지식만 가지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교수님들이 진료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만 사회에서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교수님들은 전문분야를 가지고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 해당 분야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밖의 사회에서 진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료가 성공적이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내와 병원외의 의료 환경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의료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제도도 병원 내의 의료제도와 병원 밖의 의료제도로 구분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은 병원을 구성하는 모든 인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모두 탑클라스여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구성되고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경영을 알아야 합니다. 의료의 대상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하면서 의료를 하면서 성공하고자 바란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의료의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한국인의 의식구조, 최근세사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착각하고 자가당착적인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사는 학문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의료 운영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인문학적인 접근이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 · 사진 · 편집** 치과교정학교실 강윤구

# 구강생리학 교실 – Department of Oral Physiology

왼쪽부터 이수정 교수, 김형찬 교수, 노대현 교수

**실험실** 치의학관 505호
**전공주임교수** 김형찬 교수
**전체 구성** 교수 3명 (김형찬 교수, 이수정 조교수, 노대현 조교수) 조교 1명, 대학원생 2명 (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1명)

## 1. 교실 소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생리학교실은 1989년 10월, 현재 주임교수인 김형찬 교수에 의하여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김형찬 교수께서는 25년 이상을 치과대학의 일반생리학과 구강생리학 교육에 힘써 오셨고, 특히 이온채널에 대한 전기생리학 연구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후 2012년 3월 이수정 교수와 노대현 교수가 새로 생리학교실의 조교수로 부임하면서 현재의 교실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5년 현재 1명의 조교와 2명의 대학원생(석사 및 박사과정 각 1명)이 교육 및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교실은 생리학 및 구강생리학 강의를 통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및 조직 그리고 각 기관들의 기능과 상호작용을 이해시키고, 인체의 항상성 및 구성체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MRC센터로 선정된 치아와 치주조직재생연구센터에서 1총괄 2세부과제 (세부과제책임자 : 이수정 교수, 공동연구원 : 노대현 교수)를 맡아 “치아와 두개안면 기능 회복을 위한 신경생리학적 손상 제어” 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2. 연구 분야

21세기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수명연장뿐 아니라 삶의 질적 개선 또한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선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이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신 건강 악화, 비만, 스트레스, 수면질환, 중독 및 인지기능저하 등이 의학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여겨질 수는 없으며 치의학 영역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치아의 상실에 대한 수복이 현재 치과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질병 예방 및 진행의 차단,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교실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뇌 기능적 단위인 시상망상핵에서의 소신경회로 (microcircuit) 구성 및 집단적 동기화 기전에 대한 연구
- 뇌간에 위치한 삼차신경핵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연구
- 급 · 만성 골파괴성 치주염 발생 시 시상하부에서 일어나는 신경면역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
- 항암제 투여에 의한 만성통증 동물모델을 이용한 chemotherapy 유래 신경병증성 통증 유발 기전 및 조절 인자 규명 연구
- 삼차신경통 동물모델의 개발 및 삼차신경 손상 후 야기되는 통증 발생 기전과 내인성 조절 작용 기전 연구와 줄기세포 투여를 이용한 삼차신경통 효능 평가에 대한 연구
- Nitroglycerin을 이용한 만성 두통 동물모델 개발 및 두통의 측정지표 도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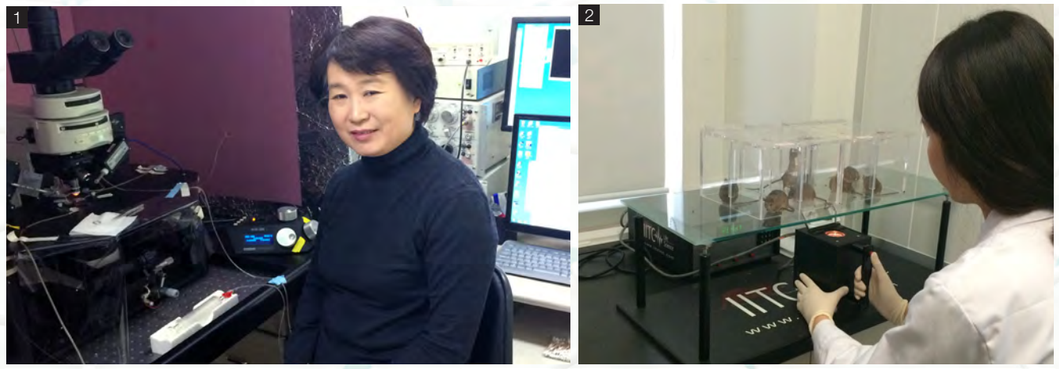
## 3. 실험 장비 및 기술

- 대뇌절편 (in vitro brain slice)을 이용하여 신경세포 및 신경네트워크에서의 전기적 신호 측정 장비
- Optogenetic transgenic mice (특정 대뇌 신경세포군에서 빛에 의해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이러한 신경세포군의 활동이 대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쥐) 및 특정유전자를 없애거나 변형시킨 유전자변형쥐를 사용하여 자극할 수 있는 광자극 setup
- 대뇌 뇌파 측정(EEG), 행동실험 및 수술 장비
- 마우스 흡입마취 장비 (mouse inhalation anesthesia system) 및 미세수술 현미경 장비
- 물리적 이질통 (mechanical allodynia) 및 열성 통각과민증 (thermal hyperalgesia)에 대한 동물 행동 측정 장치
- 포르말린 통증 행동 및 conditioned place preference 실험 recording 장비
- 형광 현미경 (fluorescence microscope) 및 이미지 분석 장치 (MetaVue)

## 4. 사회 활동

- 김형찬 교수는 2014년 3월부터 공직치과의사회 회장을 맡아 전국의 치과대학 및 치과관련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와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 대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수정 교수는 여성과학자들의 모임인 여성생명과학 포럼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생물학 및 의학 분야에서의 Gender issue(성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 차이) 식별 및 여성에서의 과학 교육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 · 사진** 구강생리학교실 노대현 **편집** 구강악안면병리학교실 조영아




1 Patch clamp 실험중인 이수정 교수 2 마우스 열성 통각과민증 측정 실험 3 마우스 infraorbital nerve (ION)의 injury 유발 수술 (수술 전, 후)
4 신경손상 후 TG에서 인산화된 ribosomal protein S6의 발현증가 5 항암제투여 마우스에서 말초 신경섬유의 분포 (진피와 상피조직)

# 일본의 식문화 I

이번 helpers에 글을 기고해 달라는 말을 듣고 한참 고민했다. 아, 뭘 써야 하나. 그런데 주제까지 정해졌다고 한다. 일본 문화란다. 문화. 얼마나 많은 종류와 넓은 범위가 있는데 뭘 하라고 하나. 앞이 더 캄캄해 진다. 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했던 미처 정리되지 않았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고청탁을 한 백교수가 간단하다고 한다. '식문화'라고 하기엔 거창한 제목인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본음식' 정도가 적당할 듯. 아무튼 시작해 본다.

## 스시

스시는 초밥이다. 스시의 원형은 동남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생선을 잡아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 곡식류에 생선을 넣어 발효시켜 오래 먹을 수 있게 발달한 음식이다. 이 음식을 만드는 법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해안의 가자미 식해(食醢)가 대표적이며 일본에서는 스시로 발전하였다. 스시는 寿司, 鮨 등이 흔히 사용되며 鮓도 사용된다고 한다. 鮨는 '물고기젓 지', 鮓는 '생선젓 자'이다. 둡는 맛있다라는 뜻이 있어 물고기 어魚와 뜻이 합쳐져 맛있는 물고기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글자는 둡에서 음만을 취한 글자이다. 아무튼 이렇게 물고기 젓으로 부터 왔다는 것이 鮨와 鮓로부터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스시 먹으러 가자고 말할 때 스시는 니기리즈시(쥔초밥)이다.

스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니기리즈시 외에도 찌라시즈시, 오시즈시 등이 있다. 형태에 따라 더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스시는 말이야~~' 하면서 친구나 동료에게 설명해 주어도 좋을 것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니기리즈시는 에도마에즈시라고해서 에도시대에 에도(지금의 동경)에서 탄생하였다. 그 당시에는 바쁜 사람들이 간단하게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지금의 패스트푸드와 닮아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서 니기리라는 말을 알 수 있는데, 握り(니기리)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쥘 악' 자이며 쥠이라는 명사이다. '오니기리와 이규동'의 '오니기리'는 이 니기리에 '오'라는 공손함을 나타내는 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먹밥이라고 한다. 이처럼 니기리즈시는 니기리와 스시의 합성어로 우리나라 말에서 앞의 중성이나 종성에 의해 뒤의 첫머리가 변하는 것처럼 스시가 즈시가 되며 이 '즈'는 소리가 탁하게 변했다고 한다.

스시의 밥은 샤리, 샤리를 덮는 생선을 네타라고 한다. 흔히 그대로 젓가락으로 들고 밥에 간장을 찍는데, 이러면 밥에 간장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 짜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밥알이 흩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간장에 찍을 때에는 뒤집어서 생선을 찍으면 생선에 간이 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명탐정코난에서는 아가사 박사(브라운 박사)가 소년탐정단 아이들을 데리고 회전스시집에 가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거기서 켄타(고뭉치)가 '에도사람은 스시를 먹을 때 손으로 먹어'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는 처음 이 초밥이 생겼을 당시 사람들이 손으로 먹었던 것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실제로 니기리즈시는 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는 꼭 물수건으로 손가락을 닦아주는 센스를 발휘할 것. 찌라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당장 점심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면 길에서 점심 드시러 오라면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한 번쯤은 받아 보았을 것이다. 요즘은 거리에 휴지통도 많이 없어져서 받으면 곤란해 지기에 인색해지기도 하였지만 말이다. 이 전단지를 찌라시라고도 하는데, 찌라시란 흩뜨려 놓음, 전단이라는 뜻이다. 찌라시즈시는 초밥 위에 여러 재료를 뿌려 놓은 것으로 니기리즈시에 사용하는 네타인 생선을 올리고, 계란부침, 시소(차조기잎)도 넣어서 간장을 찍어먹거나 뿌려 먹는다. 니기리즈시에 사용하는 네타를 사용하므로 이는 관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형태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고모쿠찌라시(五目チラシ)라고 해서 채소, 어패류 등을 다양하게 넣어 만든다. 해산동이라는 음식도 있는데, 이는 식초를 넣은 초밥이거나 식초를 넣지 않은 밥 위에 다양한 해산물을 올린 덮밥이다. 오시즈시는 초밥과 여러 재료를 상자에 넣고, 힘으로 눌러 만든 스시이다. 니기리즈시의 원형이라고 하며 오오사카, 쿄토, 토야마, 톳토리, 히로시마, 야마구치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시즈시가 있다. 에도에서는 누르는 오시즈시가 아닌 니기리즈시가 발달하였다.

크게 3가지 스시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 실제로는 김말이인 마키즈시, 유부초밥인 이나리즈시 등도 존재하고 그 밖의 더 많은 종류로도 스시를 분류할 수 있어 스시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y-kagawa.jp/kr/

## 소바와 우동

밀을 가루로 만들어 이를 이용해서 만든 면은 여러나라에서 요리로 발달해왔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면요리가 발달하였으며, 멀리 유럽의 이탈리아에서는 다양한 파스타가 발달하여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일본의 면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소바와 우동을 보자.

관동지방(동경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동쪽 지방, 특히 관동평야 일대)에서는 우동보다는 소바를, 관서지방(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서쪽 지방, 쿄토, 나라, 코베 등 중심)에서는 소바보다는 우동을 먹으라고 한다. 소바(蕎麦)는 메밀에 약간의 밀가루를 섞은 면이다. 소바를 찍어먹는 장을 쯔유라 하며, 간장, 미림(맛술), 설탕으로 만든 장에 가쯔오부시를 우려낸 다시물을 일정비율 섞어 만든다고 한다. 소바를 먹고 난 쯔유에 소바를 삶은 물인 소바유(蕎麦湯)를 부어 먹으면 숭늉과 같이 구수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양냉면집에서는 면 삶은 물인 면수를 마실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카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으로 유명한 니이가타현의 에치고유자와에는 헤기소바라는 소바가 있다. 니이가타는 쌀로 유명한데 한 겨울에 동해를 건너면서 동해의 습기를 가득 흡수한 공기가 일본에 도달하였을 때 산맥을 만나 엄청난 양의 눈(에치고유자와 주변에서는 스키장이 5/6 정도까지 개장한다)을 뿌리고 간다. 이 눈이 녹은 물로 이 일대 평야에서 쌀을 재배할 수 있어 니이가타하면 쌀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조장이 발전해 많은 종류의 니혼슈(청주, 우리는 사케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이자까야에서 사케를 달라고 하면 무슨 술을 줄까라고 되물으니 조심할 것. 사케는 술이라는 뜻으로 청주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가 생산된다. 에치고유자와 역의 상점가에서는 500엔을 내면 다섯 잔을 맛 볼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들릴 기회가 있다면 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가 살짝 딴 곳으로 새어 버렸는데 이 헤기소바는 메밀면에 해초인 후노리(청각채, 풀가사리)를 섞어 만들어 쫀득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헤기소바의 '헤기'는 이 소바를 담는 그릇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게 좀 커서 한 사람이 가면 헤기소바를 먹기는 곤란하다. 보통 2인분 이상. 헤기에 담아 있지 않다고 해도 헤기소바와는 다르지 않으므로 안심할 것. 우동으로 유명한 지방은 카가와 현으로 사누끼(讃岐) 지방이 유명하다. 이 곳에 가면 우동택시가 있는 데 이를 타면 택시기사가 유명한 우동집을 순례해 준다고 한다. 아마 맛있다고 각 우동집에서 한 그릇씩 먹으면 배가 터질지도 모르겠다. 카가와 현의 큰 도시인 타카마츠는 오카야마에서도 가깝고 직항편도 있으니 우동맛이 궁금하다면 한 번 가 보는 것도 좋을 듯. 근처에는 예술의 섬으로 유명한 나오시마도 있고, 하루 두 번씩 울돌목의 소용돌이처럼 물이 도는 나루토도 가까우니 관광하기에도 좋을 듯 하다.

사누끼 우동은 면에 탄력이 있고, 국물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 우동을 주문하면 다양한 고명(대개 튀김)이 나오는데 이를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우동에 올려서 함께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물이 주이지만, 일본 사누끼 지방 우동은 국물보다는 면에 더 중심을 두는 듯하다. 그 외에 군마현의 미즈사와(水沢) 우동, 김태희가 출현한 아이리스로 유명해진 아키타현의 이나니와(稲庭) 우동을 3대 우동으로 손에 꼽는다고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글 · 사진** 영상치의학교실 김규태 **편집** 치과보철학교실 백장현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gurutabi.gnavi.co.jp/ekiben/**

여기에서는 각 지역의 에키벤, 종류별 인기 에키벤 등이 게재되고 있다. 일본어 홈페이지이나 global site로 이동시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http://kfm.sakura.ne.jp/ekiben/**

일본어만 있다. 번역해서 볼 수 있다. 자신이 먹어본 에키벤을 소개하였다.

## 2015학년도 발전기금 입금 (2015. 02. 28기준)

**1억원 이상** 안영자 이창진 ㈜신흥

**7천만원 이상** 곽약훈

**5천만원 이상** 김은철 이재광 ㈜비스코덴탈아시아 치과대학동문회(지순준 외)

**3천만원 이상** 김학찬 전요한 김성기치과 2006년도매칭펀드 굿윌치과병원덕천 압구정사랑의치과의원 치과대학대전지역동문회 ㈜지-씨코리아 ㈜모르페우스

**2천만원 이상** 고광수 고철수 김용래 문정기 박준봉 ㈜덴티움 굿윌치과병원하단 오스템임플란트㈜

**1천만원 이상** 공희정 권영혁 김규남 김성욱 김승윤 김영훈 나성식 류동목 박영국 박양제 박주연 박창건 박태용 백두흠 변 욱 서광원 송요선 신응범 신한식 오우환 오우식 유성희 이광섭 이규원 이기수 이두희 이명옥 이성복 이상혁 이 윤 이한우 장상건 장지헌 정극모 정성민 조영욱 최대균 최효영 한만형 한정희 2014학년도매칭펀드 UIC시카고치과병원 경희치과병원 굿윌치과병원서면 오우대학 참조은치과병원 치과대학12회동문회 치과대학13회동문회 치과대학19회동문회 치과대학1회졸업생일동 치과대학22회동문회 치과대학2기동문회 치과대학3기동문회 치과대학6기동문회 치과대학9기동문회 치과대학수원지역동문회 큐플란트치과

**8백만원 이상** 김광철 김세영 김여갑 김인화 이진용 ㈜악어미디어 화인치과병원

**5백만원 이상** 고광준 권긍록 권일근 김기태 김려수 김상일 김수철 김영진 김용진 김판식 김필수 김향경 김형찬 박기범 박능석 박도양 박상혁 박승훈 박용덕 박재홍 박태용 박희경 백동준 신 명 신제원 양승춘 우이형 윤옥병 이건주 이근혁 이명성 이상호 이성복 이현우 임호남 장건택 정규림 정용식 조재오 조준영 조해성 지유진 지찬동 최경규 최근락 최기운 최성백 최용석 최호근 허성윤 허 익 홍정표 황의환 황재상 치과대학16기동문일동 최신치과

**3백만원 이상** 강기현 강승훈 고봉진 구한미 권균원 권순용 권용대 권태훈 권호진 김 덕 김동호 김명환 김보혜 김석훈 김선규 김성용 김성환 김소현 김옥진 김우찬 김윤홍 김정희 김종환 김진철 김형남 김형섭 김형진 김효종 김훈회 마경화 박동진 박미애 박상규 박상규 박상혁 박성동 박수배 박희찬 백영완 백종은 부용철 성낙도 손세일 손원영 송창준 신민철 신민호 신완용 신의종 안민호 안희진 어규식 염상국 오범수 오병섭 오성산 오승훈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신종 유영선 유용균 유충현 유형열 윤덕상 윤인종 이건옥 이광희 이동식 이백수 이상래 이상태 이수인 이영준 이용호 이재천 이종태 이진표 이청재 임성빈 임성수 임순빈 임인학 전양현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웅 전양현 정동진 정병선 정순준 정연식 정운봉 정재규 정종혁 정창권 정철민 정형주 제한봉 조남성 조민구 조세종 조인교 조정근 조태희 조호구 주성숙 지유진 천강정 최병환 최유진 최재영 최정규 최현수 한승완 한용환 한 훈 홍성태 홍영안 ㈜덴티움 김정수치과의원 동산치과 미담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조재민치과의원 중앙치과의원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2백만원 이상** 권기열 김광철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명진 김방수 김성진 김옥현 김 온 김인수 김재승 김정목 김정우 김종규 김지태 김춘진 김흥모 나긍균 노대현 류중균 모규엽 문재룡 문항진 박노희 박선영 박성근 박성원 박수진 박재현 손일수 신동진 신현택 오인종 유경민 윤석우 이규찬 이미경 이상복 이상철 이상훈 이은준 이정민 이종규 이준열 이창진 이필제 이해승 임태수 장수일 정주성 조민우 조승제 하정상 한기협 허정선 남포치과의원 부평치과 스트라우만멘탈코리아 치과대학1기동문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전공의일동 평화치과

**1백만원 이상** 강기현 강정백 강한중 고진환 고천석 곽춘길 구국본 구본룡 구자경 구자룡 구재우 권수갑 기태석 길종선 김경용 김광희 김귀원 김문기 김미경 김봉현 김상석 김선욱 김선호 김성길 김성철 김세일 김수강 김수진 김영일 김용구 김원겸 김재구 김재오 김재일 김재철 김정희 김종호 김중종 김진호 김철중 김충길 김태형 김택청 김해근 김현호 김혜경 김홍기 나성식 나종일 나태돈 남병우 남재형 노영억 류경희 류 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민효기 박동원 박두종 박병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훈 박석범 박순건 박순정 박영수 박영주 박은기 박일해 박재석 박정용 박철제 박칠성 박 현 박현석 배영수 백상규 백영걸 변태진 사영철 서경숙 서남영 서윤원 성락진 송국현 송민재 송은면 송재만 신동건 신동구 신혜련 안광식 안근국 안병규 안장원 어수철 엄인석 오세웅 오세윤 오정진 오정환 오창근 오충영 오현미 원미영 유선렬 유인영 유주현 윤경도 윤동호 윤두근 윤민의 윤창구 이건종 이공훈 이광재 이교용 이긍호 이동규 이만섭 이병국 이병도 이병태 이상은 이상호 이성철 이세종 이세준 이승춘 이승택 이영규 이영근 이영석 이영식 이완규 이용호 이원섭 이원화 이인석 이재학 이재홍 이정열 이정헌 이종인 이천복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화영 이흥기 이희정 임기효 임상욱 임종성 임천택 장영빈 장원종 장정태 장철민 장현주 장 훈 전석열 전장환 전종혁 정관희 정대현 정선모 정용복 정인교 정 철 정현근 정희일 조동석 조병도 조성국 조성열 조영진 조의현 조익주 조정현 조진호 지정호 지준순 차덕선 차애경 천무철 최명애 최상돈 최승규 최승현 최연석 최영범 최영철 최원재 최인식 최종우 최중설 최천영 치호영 하대주 한기림 한문식 한봉석 한정희 한창규 한휘철 허귀남 현원섭 홍선희 홍진표 홍해룡 황용구 2015학년도매칭펀드 경희치과의원 광산치과의원 구미공단예치과병원 구치과의원 뉴욕BNS치과의원 드림빌딩(서남영) 박상헌치과의원 발안치과 사람인치과의원 서산예치과 세영치과의원 송도드림치과의원 연산치과의원 용치과의원 웰니드치과의원 윤인탁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임길웅치과의원 청원치과의원 최완침치과의원 함께하는치과

**1백만원 미만** 강남현 강대인 강승구 강주성 강칠규 강혜성 고건호 고영훈 고일혁 고창배 고 현 공선식 공순현 곽용훈 권구현 권정은 금구석 금미연 김경선 김광식 김교철 김남중 김동규 김명섭 김미경 김민성 김보균 김보라 김보선 김상균 김상우 김석용 김성일 김승일 김승일 김시석 김시원 김영기 김영득 김영택 김윤희 김일환 김장욱 김재수 김종헌 김철순 김태연 김필수 김현경 김혜정 김호진 김홍광 노은희 류창수 류호경 모덕진 문영훈 문희현 민관순 박건호 박경아 박경일 박금출 박기헌 박성규 박성규 박용호 박원규 박재춘 박준수 박지혜 박창훈 박춘배 반태환 배기창 배일환 배한익 백기현 백종욱 백 진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재승 서찬호 소웅섭 송성국 신강섭 신동렬 신용문 신재창 양경돈 양광모 오나희 오승교 오승환 오유리 오정란 오현주 우승철 원현두 유지훈 유진석 유하균 유희송 윤여진 윤용섭 윤원용 이대승 이동현 이성만 이수미 이수영 이수옥 이승규 이시원 이연수 이영희 이원철 이 윤 이을재 이정행 이정호 이지민 이지혜 이창규 이채숙 이한주 이헌우 이현경 이현식 이혜영 임경석 임병진 장영명 장영배 전성근 전영신 전찬덕 정남희 정민수 정성민 정성진 정연진 정연진 정의산 정지향 조규석 조성국 조영옥 조영주 조윤숙 최대영 최동훈 최문철 최성연 최승모 최창규 최현용 최호영 최희철 하지웅 하치양 한동인 한무현 한수희 한혜숙 홍동희 황선달 황윤태 노치과의원 뉴욕치과 뉴욕치과의원 르네상스치과 모마치과 미소시티치과의원 석치과의원 성모치과 연수준치과의원 윤석우치과의원 이채동치과의원 제일부부치과의원 최창규치과의원 프랜드치과의원 현대치과의원

## 동문회 소식 및 경조사

### 2014학년도 2학기 회무 보고

- 2014.9.12 고황치전
  나긍균 명예회장,박능석 부회장, 김봉현 총무 참석
  졸업예정자들과 면담
- 2014.9.22 제2차 이사회(동보성)
  안건은 발전기금 사용처 설명, 동창회비 납부독려
- 2014.9.27 12회 졸업30주년 행사(경주 보문단지)
- 2014.10.18 구강 해부학교실 창립 45주년기념집 발간 및 신제원교수님 회갑연, 김봉현 총무 참석
- 2014.10.29 졸업예정자들과의 만남(아루일식)
  안민호 회장,김봉현 총무, 조선경 재무, 최재용 총무간사
  4학년 과대표, 졸업준비회장 참석
- 2014.11.04 교수협의회
  김세영 고문, 안민호 회장, 김봉현 총무, 조선경 재무 참석
- 2014.11.12 감사(설국)
  이근혁 감사, 박기헌 감사, 안민호 회장, 박재봉 부회장,
  김봉현 총무, 조선경 재무, 손세일 재무간사
- 2014.12.01 총회
- 2015.01.07 경희대 신년교례(명동 롯데호텔)
  정재규 고문, 조호구 고문, 안민호 회장, 김봉현 총무,
  조선경 재무
- 2015.01.16 국가고시 시험장 격려방문
  안민호 회장, 김봉현 총무, 조선경 재무, 최재용 총무간사
- 2015.01.27 학생 임원과의 만남
  안민호 회장, 김봉현 총무, 조선경 재무, 최재용 총무간사
- 2015.02.12 학위수여식
  안민호 회장
- 2015.02.13 입학식 및 치전원 신입생 OT
  안민호 회장
- 2015.02.14 부산동창회 정기총회
  안민호 회장, 김봉현 총무
- 2015.02.24 치의예과 신입생 OT
  안민호 회장

### 동문회 경조사

**경조사**

- 09.20 신한주(12회)딸 결혼, 09.20 이용재(12)모친상, 09.27 지유진(22)부친상, 10.13 조종만(13)모친상, 10.16 정철민(7)빙부상

### 동문회 소식

- 김형찬(9)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취임, 나긍균(10) 서울시치과의사회 감사 취임, 안민호(12)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취임, 최호근(14) 서울시치과의사신협 이사장 취임, 이상훈(14)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 취임, 정 진(15)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취임, 조선경(16)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취임, 최대영(16)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취임, 이명렬(18)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취임, 이민정(18)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취임, 윤종상(19) 동대문구치과의사회 회장 취임, 김정현(20) 중랑구치과의사회 회장 취임, 김소현(20)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취임, 김홍석(21)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 취임, 강남현(24) 광진구치과의사회 회장 취임, 김법수(21) 종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취임